

찬송에 대하여

지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성도님에게 넘치기를 바라며 성도님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번도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에 대하여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 찬송이란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말씀과 찬양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믿음생활을 하며 모였다 하면 찬송가를 부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때문에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찬송가 몇 곡조는 들어 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1. 찬송은 우리를 불러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의 노래입니다.

세상에 많은 노래와 음악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만이 영혼의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사와 곡조가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면 찬송이 아닙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행위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찬송은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참고 성경구절 : 시편 150편 1-2절]

2. 찬송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을 곡조로 표현한 기도입니다.

반드시 어떤 형식을 갖추어서 드리는 기도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찬송가를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도 있으며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란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문에 곡을 붙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성경구절 : 시편 47편 7-9절]

3. 찬송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노래를 통하여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찬송가는 작사자, 작곡가의 신앙을 시나 노래로 표현한 신앙 고백적 음악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뛰어난 분들이 만든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도 그 고백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 성경구절 : 시편 23편 1-3절]

4.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내용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을 권면하는 내용을 가진 찬송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찬송가들과 함께 복음 성가 등도 여기에 해당하는 찬송들입니다. 믿지 않는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런 찬송을 많이 불러야겠습니다.

[참고 성경구절 : 사도행전 16장 25절]

☞ 찬송을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나 혹은 혼자서 찬송가를 부를 때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부르는 진실한 찬송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1. 찬송은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게 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찬송을 통하여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부르고 나서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는 힘이 솟게 만드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노래에서도 맞볼 수 없는 귀중한 체험입니다.

[참고 성경구절 : 야고보서 5장 13절]

2. 찬송은 능력을 얻게 합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찬송을 부를 때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셨고,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으며,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을 부를 때 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찬송은 낙심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실패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일하려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찬송을 힘있게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고 성경구절 : 이사야 42장 12-13절]

3. 신앙을 성장하게 합니다.

찬송은 굳었던 마음을 열어 줍니다. 찬송은 식었던 마음에 다시 뜨거움을 더해 줍니다. 찬송은 여럿이 다 함께 부름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체험케 해줍니다. 그리하여 찬송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싹이 나게 하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합니다.

4. 우리가 드리는 찬송의 제사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 심령에는 위의 세 가지 큰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늘에서는 우리의 찬송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찬송을 부를 때 나타나는 가장 큰 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지으신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사람에게서 찬송을 받으시려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성경구절 : 이사야 43장 21절]

☞ 이 찬송을 어떻게 부르는 것이 좋을까요?

똑같은 찬송가를 불러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입으로만 노래를 따라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누리며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 ① 감사하는 심령으로 불러야 합니다.
- ② 밝고 기쁜 마음으로 부릅니다.
- ③ 소리를 높여 불러야 합니다.
- ④ 주악에 맞추어서 악보대로 부르도록 합니다.

⑤ 반드시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⑥ 때로는 손뼉을 크게 치며 부를 수 있습니다.

⑦ 각종 악기를 사용하여 찬양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⑧ 때로는 춤을 추거나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은 모두 성경에서 권하는 찬양 방법으로서,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찬송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의 신앙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름주에도 성도님의 신앙 생활을 도울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간략한 기독교 용어 해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에서 '할렐루야'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할렐루야'란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는 뜻의 히브리어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에는 처음과 끝에 거의 모두 '할렐루야' 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 때에 할렐루야 시를 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생긴 초대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시를 날마다 외웠습니다. 할렐루야 시란 시편 113편-118편의 시를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명절인 유월절 때 송영으로 외웠다고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우리도 수시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 배 안 내	주 일 예 배	1부 예배 : 오전 9시
		2부 영어 예배 : 오전 9시 (2층)
		3부 예배 : 오전 11시
		유*초등부 예배 : 오전 11시
		중*고등부 예배 : 오전 11시
	기 타 예 배	새벽 기도회 (매일) 오전 6시
		수요 삼일 예배 저녁 8시 30분
		금요 찬양 기도회 저녁 8시 30분
		중*고등부 금요 찬양예배 저녁 8시 30분
	정 기 모 임	화요일 / 한어 대학*청년부(영) 저녁 8시
		토요일 / 영어 대성경 공부(한) 오후 5시
		토요일 / 청소년 성경공부 저녁 8시
		토요일 / 한국학교 오전 9시

한인동산장로교회

NEW HOPE REFORMED CHURCH
 100 Herrmann Place, Yonkers, NY 10710
 사무실 : (914) 961-9250 / 1 (Fax 겸용)
 Website : <http://www.newhopeministry.net>

혀로 만든 음식...

탈무드에 보면...

어떤 사람이 종에게

가장 훌륭한 고기로 음식을 준비하라고 명했습니다.

종은 곧 소의 혀로 만든 음식을 접시에 담아 들고 들어와서는 음식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이 혀로 만든 음식이 가장 훌륭합니다" 혀로 우리는 남을 축복하기도 하고, 행복을 말해주며, 슬픔을 이기게도 하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도 합니다. 또 낙심한 사람에게에는 새 힘을 주고 인류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렇다면

이번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고기로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종은 다시 소의 혀로 만든 음식을 준비해 주인에게 가져왔습니다.

"주인님,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음식을 준비 했습니다".우리는 이 혀로 남을 저주하기도 하고, 인간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며, 남의 이름을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도록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혀가 가장 나쁜 고기입니다.

인간의 혀처럼 간사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한 군중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찬양하며 따랐던 무리였습니다.

잠언은 기록합니다.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29:20)"

절제하지 못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 조준하지 않고 총을 쏘는 것처럼 무고한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의사의 말 한 마디가 환자에게 엄청난 부담을 줄 수도 있고 위료가 될 수도 있음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만나는 사람마다 용기와 사랑을 주시며 격려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 생활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곧 그리스도의 혀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사랑의 말로 모든 이들 에게 기쁨과 용기를 전하는

귀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